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9. 04. 08.	
위원정수	9명	참석위원	8명

1. 회의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11:00
2. 장소 :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소회의실
3. 참석현황 : 총 9명 중 8명 참석

순 번	직책 및 소속	성 명	참석현황	비 고
1	기획처장	손성민	○	위원장
2	총무처장	전진우	○	교직원
3	스포츠지도과	김성배	○	교직원
4	교무팀장	장호승	○	교직원
5	총학생회장	김득환	○	학 생
6	총대의원회의장	원병수	○	학 생
7	간호학과 학회장	차은진	×	학 생
8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강성태	○	전문가
9	前.울산동구문화원장	한태곤	○	대학 동문
	재무회계팀장	박일현	○	
	기획팀	최원영	○	간 사

4. 안건

- 가. 재입학자 입학금 면제(안) 심의
- 나.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 다.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결산 잉여금 처리 계획 심의

5. 회의내용

위원장 :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 안건으로 재입학자 입학금 면제(안) 심의,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결산 잉여금 처리 계획 심의로 총 3건임을 안내하다. 먼저 재입학자 입학금 면제(안)부터 심의하도록 하다.

최원영 :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정규 신입생의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 수준을 밟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재입학자의 입학금도 면제하고자 설명하다.

위원장 : 재입학자 입학금 면제(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한태곤 :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장호승 :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만큼 큰 금액은 아니며, 재입학생 유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면제에 찬성하다.

위원장 : 정규 신입생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므로 재입학자의 입학금도 그에 준하여 면제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설명하고, 재입학자 입학금 면제(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전 위원에게 묻다.

전위원 : 재입학자의 입학금 면제(안)에 찬성의사를 밝히다.

위원장 :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다.

박일현 : 2018회계연도 결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주요 수입내용은 등록금 수입 314억 원, 전입 및 기부금 수입 117억여 원, 입시수수료 등 교육부대수입 19억여 원, 예금이자 등 교육외수입 3억여 원, 전기이월금 45억여 원 등이며, 다음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210억여 원, 시설관리비 등 관리운영비 49억여 원, 교내외 장학금 등 학생경비 156억여 원, 연구비 및 등록금환불 등 교육외비용 3억여 원, 건축기금 등 기금적립액 27억여 원, 실험실습기자재 등 고정자산 매입비 8억여 원, 차기이월금 45억여 원 등으로 설명하고, 상세 내역은 배

부한 회의자료를 참조하도록 하다.

위원장 : 수입 및 지출 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들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장호승 : 전년도(2017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은 어느 정도였는지 질의하다.

박일현 : 2017회계연도에는 4억 6천 8백만 원 정도였으며, 참고로 2017회계연도 이전에는 전입금이 없었다고 설명한 후 2018회계연도에는 3억 4천 9백만 원이었다고 답변하다.

김득환 : 퇴직기금적립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위원장 : 현재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강사법 개정,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을 통한 정원감축 유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 등 대학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면 교직원들의 명예퇴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박일현 : 우리 대학은 재정위기를 대비하여 수년째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원병수 : 입학정원을 늘려서 재정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나? 교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위원장 :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졸업생 현황을 근거로 대학 입학정원 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정원을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등 여러 국책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원병수 : 타대학과 비교하여 우리대학은 장학금 지급 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장학금 지급 범위를 좁히는 안은 어떤지 의견을 개진하다.

위원장 : 장학금 지급은 대학의 책무 중 하나로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3조2항에 의거하여 10%이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재정 위기 타개는 국책사업 추진과 기타 다른 방법을 고려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기 바란다고 설명하다.

장호승 : 결산 현황을 보면 입시전형료 수입보다 입시경비 지출이 더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다.

박일현 : 입시전형료 수입보다 입시경비 지출이 더 작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지만, 반대로 입시전형료 수입에 교비를 추가 투입하여 입시경비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다.

위원장 :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참석 위원 전원에게 질의하다.

전위원 : 이견 없음을 밝히다.

위원장 :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결산 잉여금 처리 계획에 대해 심의하다.

박일현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와 관련하여 이월금 및 잉여금 등에 대한 처리원칙을 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함을 알리다. 우리 대학 잉여금은 2018년 결산 차기이월자금 1,661,779,492원과 2019년 예산 전기이월자금 1,226,000,000원의 차액인 435,779,492원이며 이에 대한 잉여금 처리 계획으로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2018년 임금협약 미지급금) 170,480,000원, 계약학과 운영사업비 168,078,954원, 강사법 개정에 따른 강사료 등 97,220,538원을 사용하고자 하는(안)을 설명하다.

위원장 : 설명한 잉여금 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표 해주시기 바란다.

전위원 : 이견 없음을 밝히다.

위원장 :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결산 잉여금 처리 계획에 참석 위원 전원 합의하였음을 선언하다.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9. 04. 17.(수)

직 책(소 속)	성 명	확 인
기획처장	손성민	손 성 민
총무처장	전진우	전 진 우
스포츠지도학과	김성배	김 성 배
교무팀장	장호승	장 호 승
총학생회장	김득환	김 득 환
총대의원회의장	원병수	원 병 수
간호학과 학회장	차은진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강성태	강 성 태
前.울산동구문화원장 (대학 동문)	한태곤	한 태 곤